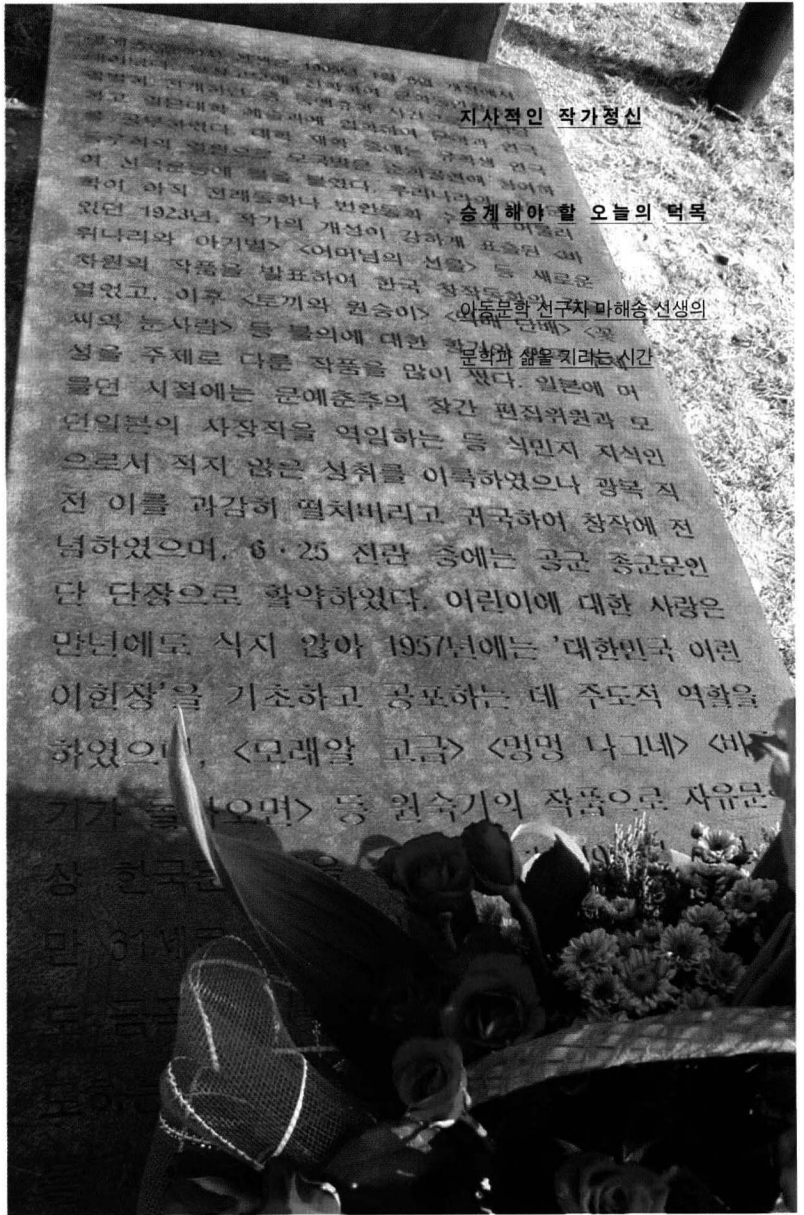


# 마해송

## 아동문학비 제막식

### '2004 가을

## 문학세미나'



파주출판단지 내 세워진 마해송 아동문학비. 문학비는 한국아동문학인 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했다.

한국아동문학인협회(회장 조대현)는 지난달 16일 파주출판단지 내 아세아출판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아동문학가 마해송 선생의 작품 세계와 문학 인생을 기리는 '2004 가을 문학세미나'를 열었다. 마해송 선생은 우리나라 창작동화의 선구자로, 아동문학의 영토를 넓히고 아동보호사상에 앞장서 온 인물. 이날 주제발표에선 동화작가 박상재 씨가 《마해송 문학의 판타지 유형과 그 계승적 탐색》을, 동화작가 이영호 씨가 《마해송 아동소설의 경향과 그 계승적 탐색》을 강연했다.

세미나에 앞서 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파주출판단지 내 중앙호수공원에서 마해송 선생 아동문학비 제막식을 가졌다. 문학비는 한국아동문학인협회가 개인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했다. 제막식에는 각 계인사와 아동문학가,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선생의 문학적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해송 선생의 문학적 삶과 문학 가치를 고찰한 주제발표 내용을 살펴본다.



‘마해송 문학의 판타지 유형과 그 계승적 탐색’을 발표한 동화작가 박상재 씨는 마해송 문학의 특징으로 ‘현실 비판과 풍자 의식’을 들었다. 마해송 작품 전반에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노력은 치열하다. 박씨는 마해송의 주요 작품을 분석한 뒤, 작품 속에 내재하는 판타지 기법이 마해송 문학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는 논지를 이어나갔다. 박씨가 분류한 마해송 문학의 판타지 유형은 4가지로서, ‘전승적 판타지’, ‘몽환적 판타지’, ‘매직적 판타지’, ‘시적 판타지’가 그것이다.

박씨는 단군신화를 모태로 한 <바위나라와 아기별>은 전승적 판타지가, 계모의 구박을 견디는 소년을 통해 일제강점기 민족의 수난사를 밝힌 <어머님의 선물>은 몽환적 판타지가, 해방 직후 혼탁한 시대상을 풍자적으로 그린 <떡배 단배>는 매직적 판타지가, 간결하고 은유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박과 봉선화>는 시적 판타지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표작품으로 꼽았다.

마해송 문학의 판타지는 현실 비판 혹은 극복의 도구로 쓰이지만, 작품 완성도에 훌륭히 기여하지 않은 않는다. 박씨는 <떡배 단배>의 경우 밀도 있게 현실을 풍자했지만, 매직적 판타지의 무분별한 구사로 주제의식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물고기 세상>은 몽환적 판타지를 통해 독재 권력의 부조리와 부패상

을 풍자했지만, 동심의 눈으로 조절되지 않은 현실인식을 과다하게 수용함으로써 판타지와 괴리를 좌초, 아동문학의 한계성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씨는 “마해송 동화의 우의적 수법으로 창작된 다양한 형태의 판타지마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정신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그는 “한국창작동화의 개척자요, 어린이문화운동의 선구자인 마해송은 한국아동문학 100년사에서 ‘빛나는 별’로 불리기에 충분한 인물”이라며 마해송의 문학적 삶을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 번 일깨우기도 했다.

기침없는 비판.

그러나 지사적인 열정은 계승해야

‘마해송 아동소설의 경향과 그 계승적 탐색’을 발표한 동화작가 이영호 씨는 마해송의 단편 아동소설과 장편 아동소설을 두 축으로 삼고 논지를 펼쳤다. 이영호 씨의 주제발표는 앞서 박상재 씨의 주제 발표와 또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씨가 마해송 전 작품에 나타나는 판타지 유형을 살핀 것과 달리, 이씨는 “<바위나라와 아기별>만이 마해송 작품의 유일한 판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 작품은 <어머님의 선물>.

이씨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수난사가 담긴 작품이란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계모의 구박을 참는 소년 상봉=일제강

점기를 견딘 우리 민족’이라는 등식은 허술할 뿐더러 격에 맞지도 않다”는 이씨는 “상봉이 일제강점기를 견딘 우리 민족이고 못된 계모가 왜적이라면, 그들 사이에 있는 무능력한 아버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씨는 “마해송 문학의 가치는 단편 아동소설보다 장편 아동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며 장편 아동소설 《앙그리께》와 ‘모래알 고금 3부작’을 분석했다. 단편 아동소설이 서민의 애환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고 있다면, 장편 아동소설이 보이는 양상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짙은 사회성을 보이는 마해송의 장편 아동소설은 치열하고 격정적이다.

이씨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덕목으로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현실과, 서민과, 죄 없는 어린이의 삶을 외면하던 권력에 치열하게 맞서 올곧게 살아온 마해송의 지사적인 작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수 강소천 김요섭 등의 많은 아동문학가가 있었지만 누구도 마해송과 같이 현실과 치열하게 부딪치며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씨는 “통속적인 대중 아동소설이 범람하던 당시를 상기하면 마해송의 존재는 더욱 뚜렷이 부각되어 마땅하다”며 마해송 문학이 갖는 현실비판의 자세를 높게 평가했다. **한글**

취재 | 박용두 기자

사진 |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제공

왼쪽부터 마해송 선생의 아들인 시인 마중기, 세마나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재, 이영호 아동문학가.



마해송(1905~1966)은...

본명은 상규. 아동문학가·수필가로서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보성고등보통학교 중퇴 후 일본 니혼대학 예술과에서 공부하고, <문예춘추>의 초대 편집장을 지냈다. 1922년 문학클럽 ‘독파회綠波會’를 조직해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잡지 <새별>에 최초의 창작동화 <바위나라와 아기별>, <어머님의 선물> 등을 발표했다. 1924년 <색동회>에 가입한 후 잡지 <어린이>를 통해 많은 동화를 발표했다.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현장’을 기초, 발표했으며, 1959년엔 <모래알 고금>으로 제6회 자유문학상, 1964년 <떡배 단배>로 제1회 한국문학상을 수상했다.